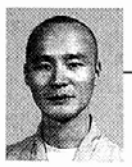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승만경 ①

남녀평등 제시 '여래장사상'

승만부인의 당당한 진리 설파 눈길

〈승만경〉은 B.C. 3~4세기경 대승사상가들에 의해 성립되어 '여래장사상'을 교설하는 경전이다. 〈승만경〉의 산스크리트어 원본은 현존하지 않으며, 단지 현존하는 불교의 논서에서 원본을 인용하고 있는 단편을 통해서 전체의 10분의 1 정도의 원형을 알 수 있다.

보통 〈승만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구나발타라 스님이 번역한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을 말하는 것이며, 한문으로 된 주석서는 모두 이것에 대한 주석이다. 티베트어 번역은 보리류지 스님의 번역과 마찬가지로 〈대보적경〉의 제48회로서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구나발타라 스님의 번역본을 소개하기로 한다.

초기의 인도 불교는 평등을 주장했지만, 인도사회에서의 여성멸시의 통념을 완전히 타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승만경〉에서는 여성의 경시는 말할 것도 없고 변성남자와 같은 관념조차도 문제로 삼고 있지 않다. 한 여성이 당당하게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부처님은 그 내용을 칭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경전은 불교 경전 가운데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 그 특색이다.

이 경전의 주인공의 이름은 승만(勝鬘:슈리마라)이라고 하며, 아유타국(阿踰陀國)의 아쇼미트라 왕의 왕비이면서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라는 것이다. 〈승만경〉이 대승경전에서 차지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자가 중심의 수행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유마경〉에서도 재가불교가 제창되고 있듯이 한 거사의 입을 통해 설해진 경이 〈유마경〉이라면, 〈승만경〉은 한 재가여성의 입을 통해서 설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승불교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의 사회 정황과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이상적인 인물로서의 등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부처님의 교설 가운데 본질에 입각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만 여성이 설했다고 하여 부처님의 교설을 바꾸려 한다면 경전에서 말하는 업력(業力)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본질적인 입장과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한다면, 본래 부처인데 왜 중생과 부처는 나누어졌을까? 그것은 본래 부처였는데 더 확실하게 깨달으려는 생각을 내는 순간부터 업력이 움직여서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승만경〉의 내용은 친정 부모인 사위국왕인 파세나디와 말리카부인으로부터 불법에 귀의할 것을 권유하는 편지를 받은 아유타국의 왕비인 승만부인이 편지를 받고 크게 기뻐하면서 부처님의 모습을 뵙고 싶어한다. 이렇게 소원할 때에 부처님은 공중에 모습을 나타내시고 승만부인은 예배를 올리고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 "여래의 오묘한 색신(色身)은 세상에 견줄 만한 것이 없네.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고 불가사의하네. 그래서 마땅히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노라. 여래의 색신은 무진하며 지혜 역시도 그러하네. 일체의 법은 상주(常住)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지심으로 귀의하는 바이네"(여래진실의 공덕장(如來眞實義功德章)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중 속에서 승만부인을 보시고 앞으로 더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이 경은 시작된다. 전체 15장 가운데 서분(序分)에 해당하는 1장 여래진실공덕장의 내용이 그것이다. 본론에 해당하는 2장으로부터 14장까지는 정종분(正宗分)이라고 하며 그 내용은 승만부인이 스스로 깨달은 바를 부처님께 토로하고, 부처님은 그것을 인가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대개 부처님의 설법으로 펼쳐지는 다른 경전에 비해 이 경은 재가여인을 통해서 진리가 설해지고 있는 점이 한 특징이기도 한 것이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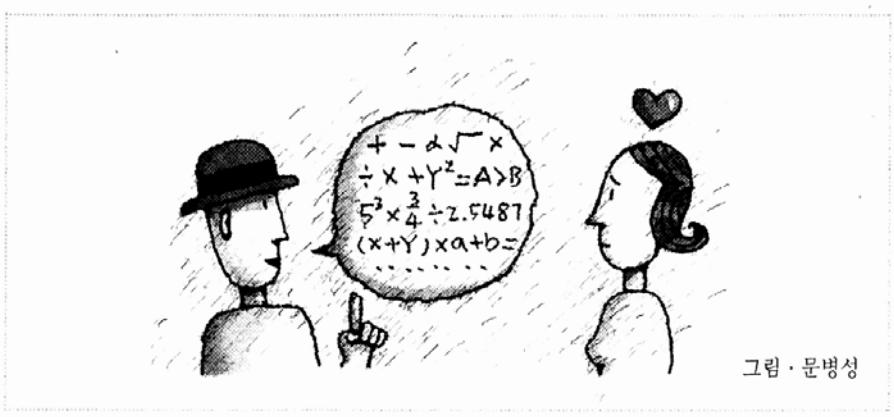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살아있는 존재 계량화 하라

불교와 과학 〈11〉

미적분 대상 고정체로 보고 계량 분석

화엄관 원견통해 사물 참모습 볼수 있어

근대 유럽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수학자인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었다. 서구 근대철학의 문을 연 철학자라면 데카르트를 들 수 있는데, 라이프니츠는 그의 뒤를 이은 합리론의 철학자이며 동시에 과학자였다. 당시에는 철학과 과학이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지성의 모험이었다. 그 모험이 지향했던 목표는 세계의 물질적 구성물을 수학으로 환산하여 사물의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수학과 같은 형식과학이 천문학과 같은 경험과학의 진리근거라는 생각이 바로 서구 과학의 존재론적 배경이었다. 쉽게 말해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수학으로 환원될 수 있고 또한 환원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배경은 뉴턴의 과학혁명이 잉태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런 세계관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론을 일러서 환원론적 과학방법론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환원론적 방법론, 즉 "계량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량화하라", 그리고 "계량화할 수 없는 것도 최대한 계량화하라" 라는 두 명제는 근대 서구 과학정신의 정언명법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자연세계에는 원래 계량가능한 것보다 계량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을 통한 환원의 정언명법을 수행하기에는 혁명적인 사유의 전환이 요청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연 안에는 원이나 사각형처럼 수학으로 계량가능한 기하학적 모델은 희귀하다. 오히려 자연은 정형의 틀이 없는, 그래서 계량할 수 없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냇가에 굴러가는 돌멩이를 계산할 수 없으며 떨어지는 나뭇잎을 계산할 수 없다. 인간의 시

과학의 권력

기심이나 욕망의 마음을 계산할 수 없으며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서구의 근대 초기 자연과학은 환원적 세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난제를 풀어 준 대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미적분법의 발견이었다.

라이프니츠의 미적분법은 계량불가능의 자연적 대상을 계량화시키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이었다. 예를 들어 나뭇잎의 면적을 계산한다고 치자. 사각형이나 원이 아닌 구불구불한 모양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른 방식의 계산법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미적분법이다. 그 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우선 대상을 무한 분할하여 가상적인 미소의 사각형을 만들고, 그렇게 계량화된 미소의 사각형의 계산값을 모두 합하여 다시 전체의 자연대상체를 계량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계량화의 도구인 미적분법의 덕택으로, 이후에 서양 근대과학은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미적분법은 계량화로 상징되는 자연관을 확립시켰지만, 그 대신 원래 연속적인 자연의 모습을 불연속의 기하학적 모델로 환원시킴으로써 불연속의 미소 단위의 사각형과 사각형 사이의 연속적인 미소 자연을 배제하여 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원래의 자연의 모습이 아닌 수학적 가상계가 탄생되었다. 문제는 그러한 수학적 가상계가 자연의 현실계를 대체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과학의 권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미적분법이란 대상을 분할하여 분석하고 다시 조립하여 대상을 원래대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과 분석은 죽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혹시 가능할지라도 살아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살아 있다는 것은 인과율이 살아 있다는 뜻이다. 인과율이 살아 있다는 것은 수학방정식처럼 주어진 변수값에 의해 결과치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수값과 결과치가 동시적으로 기승하며(同時頓起), 후 결과치가 선 변수값을 좌우하기도 하며(同時互入), 변수값과 결과치가 독립적이지를 않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同時互攝) 관계를 말한다. 이 세 관계를 쑤나타(Sunyata:空)론의 상입(相入) 관계라고 하며, 달리는 원견(圓見)이라고도 말한다.

그래서 상호작용 속의 살아있는 존재의 인과율은 과학적 인과법칙에 포섭되지 않으며, 쑤나타론의 원견을 통해서만 사물이 제대로 보일 수 있다. 이것이 서구과학의 미적분법과 대비되는 전형적인 화엄사상의 대상관이다. 서구과학의 미적분법은 대상을 영원한 고정체로 본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렇게 보다면 죽어 있는 단순 인과율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쑤나타론에서는 당연히 대상이 독자적인 존재도 아니며, 고정된 실체도 아니다. 그래서 대상을 나누는 순간 그 대상은 그 대상이 아니고 다른 대상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구과학의 미적분법은 그 나름대로의 유물론적 의미가 있지만, 그런 수학적 도구를 통해서 살아 있는 삶의 모든 흔적들을 설명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과학의 권력이 되는 것이다.

※ 최종덕 / 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동포 향수병 달래며 미국내 정착 후원

지구촌 불교 / 난민돕는 스님들

한스님 보트피플에 집 · 일자리 제공

다스스님 티베트인 무료 정신 상담

다양한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미국. 이민이나 망명으로 미국에 둥지를 튼 베트남과 티베트 사람들에게 그들의 전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스님들이 화제다.

화제의 인물은 틱 니구연 한(Thich Nguyen Hanh · 베트남)과 라마 수라 다스(Lama Surya Das · 티베트) 스님. 한 스님은 상좌부, 다른 스님은 밀교의 전통을 따르며 각기 다른 지역에서 포교와 수행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출가해 같은 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 도량을 열고 그들의 타향살이를 돕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틱 니구연 한 스님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베트남 사찰의 주지다. 6살 때 보트 피플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 이 곳에 와서 출가한 그는, 1994년 이 사원을 개원하고, 미국에 처음 온 베트남 이민자에게 미국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과 일자리를 알선하고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라마 수라 다스 스님

이 외에도 틱 니구연 한 스님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이민 2세들에게 아시아의 불교 문화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민 2세들이 스스로 출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베트남 이민자 가운데 성공한 사업가들의 도움과 사찰의 보시금 일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1개월 동안 아시아 불교유적을 답사한 이민 2세 추 타이 빈(Chu Thai Binh · 26)은 "지난 여름 아시아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무스유'의 삶에 더 없이 감동했다"며 "가족의 생활이 더 나아지면 출가해 틱 니구연 한 스님과 같이 민족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휴스턴은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베트남 이민자가 많은 곳인데, 98년도 미국 인구통계에 따르면 휴스턴 남서부 지역에만 약 10만 여명의 베트남인들이 살고 있다.

라마 수라 다스 스님 역시 티베트 망명자 지원에 앞장서며, 동포 돌보기에 열의를 보이는 신세대 티베트 스님이다. 그의 이력은 남다르다. 어릴 때 유대교 집안에 입양돼 '제프리 밀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뿌리를 잊은 채 살아오다, 20대 중반 아시아 여행을 기점으로 티베트 불교에 귀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불교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라마 수라 다스 스님의 티베트 지원 사업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정신과 의사와 자매결연 맺기'. 이 사업은 티베트 난민 대부분 수개월 동안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망명길에 올랐던 이력이 있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티베트 난민에게 무료 정신 상담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데, 현재 적잖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라마 수라 다스 스님은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이 또다시 이 곳에서 냉대를 받게 할 수 없다"며 "우선 정신적 건강을 찾게 하고, 그 다음에 삶이 방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내면의 불성을 닦기〉, 〈성스러운 깨달음〉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天藥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9114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입상 및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제11회 특선 작품)

동경국제서화대전 제19회에서 준대상 당선

- 동양철학의 초보자 및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
- 동양근본철학으로 인격완성과 수명, 재산, 건강관리법
- 현대의학과 한방으로도 치유가 되기 어려운 마음의 문을 여는 심연의 법과 운명을 관리하는 법
- 풍수지리 비장법인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비전「감여보감」과 「일사보감」에 감추어진 비법 – 장풍법, 황천법, 팔효법, 산삼제법
- 12생띠들이 들어가야 할 명당비법과 사주학, 운명학, 성명학, 풍수지리학, 양택 · 음택, 사주변형법을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직강 최첨단기 강의법, 명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법입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상담전화 : 02) 821-6622 016) 239-3119 야간 : 02) 923-3110

귀하는 인생의 스승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인육신 도통으로 영과 혼을 담아그린 달마상의 비법은 새태양의 운기로써 흉한일을 당하려면 조용했던 집안이 시끄러운 집과 흉한터, 수맥차단 초상상문, 사업장, 이사 개업 노력해도 안되는 도통과 학업, 진학, 고시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달마도상을 집에 소장하시고 순금골드 99.9 달마지상 지니시여 건강, 부귀영화, 수명장수 말문이 터지지 않는 분 및 각종 경쟁에서 승리하시고 삼재소멸하소서.

대한 역학 풍수지리 학술원장 합장

용맹정진 0과1수의 대운맞이 제61회 眞人道通 庚申大法會
하늘의 법도와 서성명성의 대운 받아 도통군자되소서

하늘의 음성 영혼의 천문도법인 눈과 귀과 있어도 보고듣지 못하는 원방각에 감추어진 해인도법의 대비밀장임을 명심할지어다. 이 기도에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별기도를 양력 12월 27일 12월 28일, 자시와 오시에 사명자들에게 다시 없는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도통군자 잣대를 얻어 증상운 120세 180세의 천안통 숙명통에 도전하여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도통군자 연기법에 도전하시어 12식의 법장보살 즉 염라대왕을 제도할 수 있는 사명자 도인 되소서. 하늘의 **근본법도를 알재 못하면서 제멋대로 지꺼리는 잡도에 끌리여 눈먼거북의 종행 동타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즉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日本은 우리의 강산에 쇠못을 밖고 중궁헌훤황제는 우리의 마음에 쇠못을 밖은 사실을 당신은 알고계십니까?**

이 법의 소식은 象 · 形 · 萬有 법의 잣대로 설계 법측, 법칙 천공, 만유의 각 5대 주문이 없는 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어떠한 도통도 불가하며, 다만 잡신에 끌리여 억망진창을 왜 모르며 몸에 태산같은 중병과 육심과 명예의 삼독을 벗고 말문이 열리는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특히 이번 법회는 하늘이 열리는 달이므로 몸에 천병, 잡신, 살이찌는병을 소멸 이기도 입문자들에게는 수명이 늘어나고, 육신을 보호하는 만법을 통할 수 있는 법회에 동참하시고 소원성취하시어 사명자, 진인도통하시어 일류의 스승 되소서.

- 입 제 : 양력 12월 27일 밤10시 ~ 12월28일 亥時시
- 회 비 : 일금 5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수요일 밤 입제
-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목요일밤 해제
- 전 화 : 02) 821-6622 / 야 923-3110 / 016) 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7번출구, 7호선 신대방역 하차 버스 85,25,95,26,303,26,142,26-3 모자원고개 하차 전화요망)

※ 그간 동참하셨던 도인들에게 대회의 광장으로 새천년 Y2K의 해결 비법을 토론하오니 빠짐없이 동참하시어 기량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천지인 해인법도의 지대로 가름합니다.

雄祖. 진인경신도통회장 天龍眞人 泰日法師
약사도량 달마선원